

2008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 동향

정진희(서울대)

1. 머리말
2. 영역별 연구 성과 개관
3. 문제적 연구 경향과 첨언
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2008년 한 해 동안 제출된 구비문학 분야 연구 성과를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그 특징적 연구 동향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등 구비문학의 관습적 하위 갈래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 중에서 2008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간행된 자료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¹⁾

관례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구비문학의 영역별 연구 성과를 개관하여 각각의 연구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그 다음 각 분야의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논의의 경향을 추리고, 그 의의에 대해 간단하게 첨언하는 방식으로 부족하나마 2008년 구비문학 분야 연구 동향 정리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1) 단행본과 학위논문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검색을 통해, 학술논문집 수록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키스온라인, 디비피아 등의 참고정보원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목록을 확인하고 원문을 열람하였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않았거나 검색을 잘못하여 검토 대상에서 누락된 연구 성과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여건상 제목과 목차, 초록만 확인하고 본문은 검토하지 못한 자료도 더러 있다. 하계 학술 대회에서 이 글을 발표한 후 나름대로 보완했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연구자 여러분의 해량을 부탁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온전히 필자의 몫이다.

2. 영역별 연구 성과 개관

2.1. 설화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설화에 대한 연구는 여타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압도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의 많은 부분은 전형적인 설화 연구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산재하는 각편들을 대상으로 특정 유형의 설화를 분류하여 제목을 붙이고, 이를 다시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해당 유형 설화가 지니는 의의를 탐색하는 것이 그것이다. 설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위 논문의 경우, 특히 이러한 방법론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²⁾ 연구 대상이 되는 설화 유형은 다양하지만 논의의 전개 방식이 그다지 다르지 않고, 대부분 해당 유형의 설화가 ‘우리 문화’ 내지는 ‘우리 문화’에서 지니는 의의를 지적하는 결론에 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식 면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찾기 어렵다. 논의 대상이 되는 설화 중에는 여성이 제재가 되는 설화 유형이 많고, 따라서 여성 문제나 여성적 관점에서의 연구 시각이 눈에 뜨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³⁾ 이는 지난 한 해의 특별한 연구 경향 이라기보다는 근래 지속되어 온 여성주의적 문학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설화 연구의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설화집의 간행도 끊이지 않고 계

2) 이향애, 「한국 흥수설화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김신정, 「한국 며느리 설화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허희수, 「조선시대 호남지역 열녀설화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이미현, 「남부지방의 풍수설화 연구」, 중부대 박사학위논문; 곽의숙, 「한국 의료설화 연구」,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김복순, 「한국 바보민담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박종오, 「한국의 귀신설화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등.

3) 이 글의 다른 곳에서 언급했거나 언급하게 될 논문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김복순, 「여성 바보담의 웃음과 의미 고찰」, 『어문연구』1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노영근,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유형의 갈래와 의미」, 『어문연구』1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노제윤, 「『나무꾼과 선녀』·『우렁각시』 설화의 정신분석적 의미 비교 연구」, 『어문논집』57, 민족어문학회; 박연숙, 「<손없는 색시>의 한일 비교 연구」, 『비교문학』44, 한국비교문학회; 이유진, 「한국 천주교 순교자 설화 연구-여성 동정 순교자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회; 이인경, 「기혼여성의 삶, 타자 혹은 주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이찬욱·이채영, 「한국 귀신의 원형성과 아랑형 여귀담」, 『우리문학연구』24, 우리문학회 등.

속되었다. 이복규는 중앙 아시아 고려인 사이에서 전해지는 구전 설화를 체계적 성격을 지니는 논문과 함께 묶어내어⁴⁾ 설화집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했고, 황인덕은 이야기꾼 한 명이 보유한 이야기 문서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온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이어 지난 해에는 『이야기꾼 구연설화:민속순』⁵⁾을 간행하였다. 그간 설화집 간행이 지역별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전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한정되었던 지역이 해외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후자는 화자 중심 설화집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설화집의 간행은 양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나, 간행된 설화집의 질적 다양화는 이후 연구의 다양한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긍정적 조짐이라 할 수 있다.

개화기에 이루어졌던 설화 채록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주목된다. 1904년 러시아에서 간행된 『조선설화』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떤 경위로 조사된 것인지가 밝혀졌고,⁶⁾ 수록된 이야기의 특징과 의의가 구명되었다.⁷⁾

이렇게 다양한 설화를 묶어내는 것 이상으로, 기존 설화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작업도 중요한 연구 과제일 터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가 집대성될 무렵 활발하게 진행된 설화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는 한동안 휴지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08년 이인경의 『「韓國口碑文學大系」소재 설화 해제』가 간행되어 주목을 요한다. 이 책은 기존의 분류 방식이 자료의 실제에 접근하는 데 적잖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제재별 분류’라는 새로운 분류 방식을 제시하였다. 저자의 말대로,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기존의 『한국구비문학대계』 분류 체제를 재구성하여 일반인들의 설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⁸⁾는 의의가 있다. 책의 내용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의 설화를 제재별로 분류하고 그 줄거리를 요약하

4)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 집문당.

5) 황인덕 편, 『이야기꾼 구연설화:민속순』, 제이앤씨.

6) 강제철, 「러시아 N.G.가린의 개화기 한국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방법-조사자와 제보자 및 후원자에 주안하여」, 『동아시아 고대학』18, 동아시아고대학회.

7) 전성희,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한국민속학』48, 한국민속학회.

8) 이인경, 『「韓國口碑文學大系」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설화를 모두 다루지 못한 점 등 본격적인 설화 분류 연구 성과로는 미흡해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기존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제재별 분류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바, 논의의 시발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마땅하다. 구비설화가 문화콘텐츠 및 문학치료의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설화 유형 분류는 설화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될 터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설화 연구 경향이라면 경험담의 설화 문학적 접근, 설화의 문학치료적 활용에 대한 연구, 현대적 공동체에서 향유되는 현대적 설화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을 터이다. 지난 한 해에도 이러한 연구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면, 일회적 유행은 아닌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경험담은 여성 생애담⁹⁾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구술적 생애담을 연구하는 등 그 대상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¹⁰⁾ 현대인의 병증의 진단과 치료에 ‘설화’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역시 문학치료학회와 건국대학교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다.¹¹⁾

현대 설화에 대한 논의로는 학교 괴담이나 도시 괴담에 대한 연구의 선편을 잡았던 김종대의 또 한 편의 연구 논문이 제출되었다. 학교 괴담을 비롯한 도시 괴담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괴담 및 일본의 괴담 연구와의 상관성을 부인할 수 없는데, 김종대는 일본 괴담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학교 괴담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근거로 한 이야기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9)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김대숙, 「결혼 이후 여성의 자기 체험 서사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10) 이현홍, 「재일한인의 삶과 이야기」,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회.

11) 강미정, 「〈자린고비〉 설화와 강박성 성격장애와의 상관성」, 『문학치료연구』9, 한국문학치료학회; 성정희, 「설화를 활용한 소아기 우울증 아동의 문학치료 사례 연구: 〈반쪽이〉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방유리나, 「〈쥐뿔도 모른다〉에 나타난 부부의 성 문제와 관계의 재정립」, 『문학치료연구』8, 한국문학치료학회; 하은하, 「〈명당 훔친 딸〉과 부모 서사 진단」, 『문학치료연구』8, 한국문학치료학회; 서은아, 「손없는 색시〉의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국학연구』12, 한국국학진흥원 등.

지적하고 있다.¹²⁾ 도시민속에 대한 접근이기는 하나 부산의 일본 귀신 전설을 고찰한 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부산 지역의 역사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고,¹³⁾ 정재민은 이른바 ‘군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병 유머’를 통해 이러한 유머의 전승이 향유자 및 전승자에게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를 드러내었다.¹⁴⁾ 이러한 연구는 현대 설화가 현대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밀착되어 있는 갈래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구 시각의 새로움 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을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설화를 고찰하는 일련의 연구들이다. 전승 집단의 문화와 역사의 거울로서 설화의 가치를 지적한 바 있는 임재해는 설화의 전승이 마을을 단위로 구체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마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설화에 접근하였다.¹⁵⁾ 임재해가 재직하고 있는 안동대학교에서 나온 두 편의 석사논문은 이러한 연구 시각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¹⁶⁾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화 집단을 통해 새로운 인문학의 지평을 개척하고자 한다는 임재해의 연구 시각은 전혀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구비설화를 통해 마을 우주의 실재를 드러내보이며 구비문학 전승 단위로서의 ‘마을’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천혜숙의 일련의 논의¹⁷⁾와 맥락이 닿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 국가의 허구성이 문제되고 있는 요즘, 추상적인 국가나 민족이 아닌 ‘마을’이 구비문학이나 문화의 단위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설화 연구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신화 분야 연구 성과는 어떠한가? 제주도 신화에 대한 연구가 신화 연구의 대중을 이루는 가운데¹⁸⁾

12) 김종대, 「학교괴담을 통해 본 전통문화의 수용과 변화에 대한 일고찰」, 『우리문학연구』25, 우리문학회.

13) 김정하, 「부산의 일본귀신 전설에 대한 도시민속학적 고찰」, 『동북아문화연구』1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4) 정재민, 「사회화 과정으로 본 기간병 유머의 양가성」, 『국문학연구』18, 국문학회.

15) 임재해, 「설화에 의한 문화주권 인식과 마을문화 읽기」, 『어문학』99, 한국어문학회.

16) 김보라, 「황전마을 이야기의 연행 및 전승양상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김원구, 「설화에 나타난 마을문화와 주민들의 의식」,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7) 천혜숙, 「마을우주와 신화적 세계관」, 『구비문학연구』8, 1999; 천혜숙, 「마을신화 연구방법-마을신화지를 위한 구상」, 『민속연구』14, 안동대민속학연구소, 2005.

개별 신화 작품론¹⁹⁾이 제출되고, 설화에서 신화적 요소를 파악하는 논의,²⁰⁾ 신화의 역사와 관련하여 여성 신화의 의의를 드러내는 논의,²¹⁾ 특정 화소나 특정 신격을 대상으로 하는 신화 비교 연구²²⁾가 산개되어 기존 연구 시각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신화에 대한 장르론적, 이론적 접근도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중요한 연구 경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²³⁾ 제주도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의 신화를 비교하여 왕조 권력 하에서 왕조로 편입된 이른바 ‘주변부’ 신화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신화와 왕조/국가 권력의 관계를 일반화하려 한 논의²⁴⁾는 이러한 연구사적 흐름과 맥이 닿는다.

- 18)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148, 국어국문학회; 강소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3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김진희, 「<세경본풀이> 연구: 분석심리학적 접근」,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 방식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3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김현산·변남성,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33,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김형근·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정신문화연구』112; 이영지,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의 적층 양상」, 『배달말』42, 배달말학회; 전주희, 「제주도 무속 신화에 나타나는 증여 관계 연구: 독립된 제차를 지닌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이인경,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학회 등.
- 19) 강진욱, 「<바리공주>의 서술구조와 ‘망자축원’의 존재양상: 배경계본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김현선·시지은, 「함경도 본풀이 <돈진풀이>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이강엽, 「<동명왕편> 소재 양가물의 신화적 기능과 서사 맥락에서의 의미」, 『고전문학연구』34, 한국고전문학학회 등.
- 20) 권태효, 「<대대로 내려온 불씨>담의 성격과 불 기원신화적 면모」,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황인순, 「<아랑설화> 연구: 신화 생성과 문화적 의미에 관하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최윤자, 「『심청전』의 신성혼신화적 성격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등.
- 21) 권도경, 「소서노 신화의 위계 변동 체계 및 전설화 양상과 그 의미」, 『퇴계학과 한국문화』42,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신경득, 「웅녀의 산신격 연구」, 『배달말』42, 배달말학회; 천혜숙, 「선도성모 담론의 신화학적 조명」,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 22) 강은혜, 「동아시아의 대장장이 신화 연구」, 『동북아문화연구』1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권오경, 「동아시아 곡신신화 연구」, 『어문학』102, 한국어문학학회; 박기용, 「한·중 건국 시조신화 비교 연구」, 『우리말글』43, 우리말글학회; 박송희, 「한·중 시조신화 비교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박종성, 「중·동부 유럽과 한국의 창세신화 그리고 변주」, 『비교민속학』35; 양민중, 「단군신화와 게세르 신화」, 『단군학연구』18, 단군학회; 전영숙, 「한국과 중국의 창세 및 건국신화 속에 깃든 물 숭배 관념」, 『한중인문학연구』24, 한중인문학연구회; 진영결, 「한·중 왕조신화의 용설화 비교 연구: <<삼국유사>>와 <<25사>>를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등.
- 23) 구체적인 사례로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참조.
- 24) 정진희,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신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경향은 신화 연구 자체에 대한 메타적 연구로도 구체화되고 있다. 권태효는 ‘근대 여명기’ 신화 자료의 현황을 조사하고, 특히 한국 신화학 초기의 학자로서 손진태에 주목하여 그가 채록·소개한 무가의 실상을 밝혔다.²⁵⁾ 아직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단계이지만, 국내의 ‘신화학’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닦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 및 식민지의 지적 담론에 대한 타분야 학계의 관심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 경향은 확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김영남의 논의²⁶⁾를 주목할 만하다. ‘한국 신화학의 『근대성』 극복을 위하여’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김영남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이루어진 단군 신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그것이 ‘민족’이라는 ‘근대적’ ‘공동환상’을 만들어온 담론임을 논증하였다. 주로 역사학계의 단군 담론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구비문학’이라는 연구 마당에서 이루어져 온 ‘신화학’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지만, 민족 혹은 국가 이후에 생성된 신화에 대한 연구가 근래에 만들어진 민족국가신화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실태에 대해서는 조동일에 의해 지적된바,²⁷⁾ 김영남의 문제적 시각은 구비문학 연구로서의 ‘신화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일본 신화 연구자들에 의해 ‘내선일체’라는 역사적 사건에 한일 신화가 이용된 양상이라든가 일본 신화학자에 의한 한국 신화 연구의 실상도 검토되었다.²⁸⁾ 근대적 한국 신화학의 태동이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들과 그에 대응하는 조선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연구 성과들이다.

25) 권태효, 『근대 여명기 우리 신화 연구』, 민속원.

26) 김영남, 『시조 신화 연구: 한국 신화학의 「근대성」 극복을 위하여』, 제이앤씨.

27) 조동일, 「세계 속의 한국신화」,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7-일반이론 정립』,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여기에서 조동일은 신화를 민족 혹은 국가 성립 이전에 형성된 신화(1), 그 이후에 생성된 신화(2), 근래의 민족국가신화(3)를 구분하고, 각각의 신화를 대상으로 하는 신화학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28) 노성환, 「내선일체에 이용된 한일신화」, 『일어일문학』40; 박미경, 「미시나 쇼에(三品彰英)의 한국신화연구 고찰」, 『일본학연구』25, 단국대일본연구소.

한국 신화 연구 혹은 한국 신화학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일제 강점기 최남선이나 단군 신화 담론을 대상으로 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들²⁹⁾과도 맥이 닿는다. 이러한 논의들이 신화 연구에서 일정한 흐름을 형성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화 텍스트나 그 전승의 현장이나 맥락이 그간의 신화 연구 대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 경향은 신화 연구 혹은 신화학이라는 담론을 다룬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의 확대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2.2. 민요

민요 분야의 연구는 전통 사회에 기반을 둔 민요에 대한 것과 개화기 이후의 노래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듯하다.

전자에 속하는 연구로는 <정선아라리>, <상여소리>, <해녀 노젓는 소리>, <어사용>, <처녀의 저주로 죽는 신랑>, 서도민요 <긴난봉가> 등을 대상으로 한 논의 등이 있다.³⁰⁾ <어사용>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거나 <상여소리>에 나타난 죽음의식이 화자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작품론적인 접근에서부터, 장르 교섭이나 장르적 성격 규명에 초점을 맞추거나³¹⁾ 민요의 사적 전개에 주목하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목할 만한 논의로 강등학의 성과를 살펴보면, <아라리>의 사적 전개는 물론 그것이 ‘사회적 약자의 언론 도구’라는 ‘문화적 형질’을 지니는 갈

29) 예컨대 조현설, 「동아시아 신화학의 여명과 근대적 심상지리의 형성」, 『민족문화사연구』16, 2000; 조현설, 「근대계몽기 단군신화의 탈신화화와 재신화화」, 『민족문화사연구』32, 2006.

30) 강등학, 「정선아라리의 민요 생태와 문화적 의미」, 『한국민요학』23, 한국민요학회; 고현주, 「전남지역 상여소리 연구: 화자에 따른 죽음의식을 중심으로」,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이성훈, 「<해녀노젓는 소리>의 형성과 전파」, 『우리문화연구』24, 우리문화회; 이정아, 「어사용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회; 최현재, 「서사민요 ‘처녀의 저주로 죽는 신랑’ 유형에 나타난 양가성 고찰」, 『우리말글』43, 우리말글학회; 손인에, 「서도민요 <긴난봉가>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민요학』23, 한국민요학회 등.

31) 류경자, 「무가 <당금애기>와 민요 ‘중노래·말말애기’류의 교섭 양상과 변이」, 『한국민요학』23; 서영숙, 「서사민요의 장르와 문학적 특징」, 『한국민요학』23, 한국민요학회; 최자운, 「다복녀 민요의 유형과 서사민요적 성격」, 『한국민요학』22 등.

래라는 본질적 특성을 구명하는 데에까지 논의가 진전되었다. <아라리>의 범주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나, 전통 사회의 민요와 근현대 대중문화로 향유되는 노래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아라리>의 문화 원형질적 특성과 역사적 변천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통 사회의 민요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의 하나로 지역 문화로서의 민요의 가치에 주목하여 민요의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는 논의를 들 수 있다. 구비문학의 여러 하위 갈래 가운데 민요는 ‘민요권’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적 특성이 강한 편인데, 최근에는 기존 민요권의 하위 층위에 해당하는 지역 민요의 특성을 고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²⁾ 이옥희는 진도 민요의 ‘흥’에 주목하는 한편 그것이 여전히 현재의 문화로서 지속되고 있음을 그 특성으로 지적하였고, 김익두는 전북 민요의 개방적 수용성과 적응적 변이성을 ‘소용돌이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특징지었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과연 그 논의 성과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그 지역의 변별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민요 일반의 특성이 지역 민요의 개별적 특성으로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타 지역과 다차원적인 비교 논의가 요구된다.³³⁾

양적으로 연구 성과가 두드러졌던 것은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의 노래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어문학연구』51호의 특집으로 수록된 연구 논문들은 전통 사회의 노래와 근현대 노래의 관계와 구분을 주로 문제 삼았다.³⁴⁾

32) 서영숙, 「충북 여성 민요의 정서 표현 양상과 현실 의식」, 『한국민요학』22, 한국민요학회; 김익두, 「전북 민요의 소용돌이 미학」, 『한국민요학』22, 한국민요학회; 이옥희, 「진도 민요의 문화적 특질과 위상」, 『한국민요학』22, ; 홍순일,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 양상」, 『한국민요학』22, 이창신, 「충청북도 농요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등. 이들 중에서 이창신의 논의는 유교철학·예악학 전공자의 연구 성과인데, 농요, 즉 민요를 바라보는 시각이 민중성을 강조하는 구비문학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33) 지역 민요의 비교 연구 성과로 강정미, 「<밭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 연구: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비교 분석」, 부경대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34) 구인모, 「가사체 형식의 창가화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권도희, 「1910년대 창가와 잡가」; 김종진, 「잡가·민요·가사의 경계에 대한 탐색」; 민경찬, 「“창가”

유성기 음반에 대한 지속적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박지애는 유성기 음반 소재 잡가의 현황을 살폈고,³⁵⁾ 이예진은 근간에 간행된 『유성기음반가사집』을 활용하여 신민요 사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³⁶⁾

대중가요에 수용된 신민요에 대한 논쟁도 크게 보아 이러한 맥락에 놓인다. 1920년대 이후 대중가요에 수용된 민요를 ‘신민요’라 하는데, 이 신민요의 의의에 대한 논쟁적 논의가 제출된 것이 주목된다. 최은숙은 신민요에 대한 당대의 긍정적 인식과 수용이 전통성과 민족성 회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장유정의 논의³⁷⁾에 대해, 신민요에 대한 평가를 민요가 지닌 전통성과 민족성 문제와 결부시킬 때 오히려 그 평가가 긍정적이기 어렵다고 하고, 신민요가 당대의 대중가요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유행성과 대중성이라는 매력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일제 강점기 이후 대중가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두 연구자이니만큼,³⁸⁾ 발전적 논쟁과 논의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3. 무가

지난 한 해에도 무가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주로 서사무가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것은 신화 분야의 연구 성과에서 검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외의 연구 성과의 주된 경향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무가 자료집의 간행 성과가 예년에 비해 미미했다는 것이다. 과묵한 탓이겠으나, 제주도 ‘시왕맞이’ 의례의 채록 전사의 사례³⁹⁾ 이외에 새로운 자료를 접하기 어려웠다.⁴⁰⁾

를 다시 묻는다; 배연형, 「창가 음반의 유통 등.

- 35) 박지애, 「유성기 음반 소재 잡가의 현황과 레퍼토리의 양상」, 『어문학』99, 한국어문학회.
 36) 이예진, 「신민요 사설의 특성 분석: 『유성기음반가사집』을 중심으로」,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37) 장유정, 「1930년대 신민요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수용」, 『한국민요학』12, 2003.
 38) 최은숙, 「일제 강점기 민요 창작론과 창작민요의 특징」, 『한국민요학』24, 한국민요학회; 최은숙, 「20세기 전반기 대중가요에 나타난 ‘타국’ 인식과 형상화 방식」, 『한국민요학』23; 장유정, 「20세기 전반기 한국 대중가요와 디아스포라」, 『대중음악』2, 한국대중음악학회; 장유정, 「1950년대 대중가요의 이국성 고찰」, 『구비문학연구』27.
 39) 강정식·강소진·송정희, 『(동북 정병준택) 시왕맞이』, 보고서.
 40) 검색을 통해 관우, 『천신국 무가집』, 신지평, 2008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실제 책을 확인하

무가 자체에 대한 논의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김구한의 「동해안 세습무 김영희의 무가 사설 연구」가 박사논문으로 제출되었고,⁴¹⁾ 동해안굿 무가와 황해도굿 무가,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내림굿 무가 비교 연구⁴²⁾ 정도가 조사되었다.

무가 분야 연구는 무가 자체보다는 무가가 구연되는 곳에 대한 연구로 그 방점이 이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무가 분야의 박사학위논문은 여섯 편으로 결코 적은 수라고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무가보다는 무가가 구연되는 곳을 연행이라는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고찰하였다.⁴³⁾

결과적으로, 최근 연구 동향은 굿 자체에 대한 논의가 확장,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굿의 변화에 대한 연구⁴⁴⁾를 비롯, 현재의 굿 연행과 관련되는 배경적 요소를 두루 고찰하는 데⁴⁵⁾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무가권과 굿 문화권을 가름과 동시에, 그 교섭과 분화 양상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 성과⁴⁶⁾에 이르면, 연행 현장과 그 배경에 주목하는 연구 경향이 특정 지역의 굿을 유형화하여 그 지역적 특색을 고찰하는 연구 경향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갓 박사논문을 쓴 젊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연구 경향을 주도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무가 분야 연구 경향은 굿에 대한 민족지적 고찰로 호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가는 그 구비텍스트가 연행 현장과 분리되지 않은 채 전승되는, 이른바 ‘현장’이 살아있는 대표적 갈래인바, 무가를 둘러싼 굿에 대

지는 못하였다.

- 41) 김구한, 「동해안 세습무 김영희의 무가 사설 연구」, 울산대 박사논문.
 42) 김현선, 「제주도와 沖繩의 내림굿과 본풀이 연구」, 『비교민속학』35, 비교민속학회; 최성진, 「동해안 별신굿 무가의 전승 현황 연구」, 『한국무속학』17, 한국무속학회; 홍태한, 「동해안굿 무가의 존재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17; 홍태한, 「황해도굿의 무가」, 『한국무속학』16.
 43) 변지선, 「서울 진오기굿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윤동환,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조정현, 「별신굿의 전승력과 축제적 연행의 원형」, 안동대 박사학위논문; 최상화, 「서울굿의 노랫가락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44) 권은영, 「20세기 풍물굿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김신호, 「동해안 탈굿의 변화 양상과 요인」, 『한국무속학』16, 한국무속학회 등.
 45) 윤동환, 「동해안굿의 전승 주체와 문화 창출」, 『한국무속학』17; 조정현, 「동해안 별신굿의 토대와 물질문화 전승」, 『한국무속학』17 등.
 46) 이영배, 「굿 문화의 교섭과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무속학』17.

한 연구가 심화되는 것은 긍정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다만 한가지 깊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무가라는 ‘구비문학’ 갈래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구비문학과 민속학의 경계, 혹은 민속학이 담당하지 못하는 구비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굿 연구가 곧 무가 연구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무가의 장르적 특성, 무가의 작시 원리 및 여타 갈래와의 교섭 관계 등 낱선 문제의식에 기반한 선학들의 연구 업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연구 시각과 문제의식은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2.4. 판소리

2008년도에는 판소리 사설에 대한 작품론적 접근으로 <변강쇠가>에 대한 논의가 몇 편 제출되었고,⁴⁷⁾ 판소리 단가에 대한 연구도 명맥을 이었다.⁴⁸⁾ 판소리 창자에 대한 논의,⁴⁹⁾ 판소리의 역사 및 연행 현장에 대한 논의가 연구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⁰⁾ 판소리 분야의 연구로 연행 현장과 그 배경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악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가 연구가 굿이라는 연행 자체로 연구의 방점이 이동되고 있는 것처럼, 판소리 연구 역시 그 방점이 연행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판소리’가 구비문학의 하위 갈래로서가 아니라 판소리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서 정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판소리학’의 정립과 관

47) 강윤정, 「박동진 창본 <변강쇠가> 연구」, 『판소리연구』25, 판소리학회; 우혜영, 「<변강쇠가>의 인물 특성과 성담론 연구, 배재대 석사학위논문;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강쇠 현상과 그에 대한 적대의 의미」, 『어문논집』58, 민족어문학회.

48) 서정민, 「단가 “녹음방초” 연구」, 『판소리연구』25.

49) 배성자, 「박동실 판소리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차복순, 「판소리 명창 이일주의 생애와 예술」,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최혜진, 「명창 박초월론」, 『판소리연구』26, 판소리학회.

50) 김수중, 「초기 판소리의 집단 문학성 연구」, 『한국언어문학』65; 송미경, 「1910년대 판소리 여성 연행주체의 형성과 성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정병현, 「판소리의 전승과 공간적 배경의 관계 연구」, 『판소리연구』25; 최혜진,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유랑 예인집단의 양상과 의미」, 『고전과 해석』5, 고전문학한문학회.

련되는 일련의 논의들⁵¹⁾이다. 학회의 기획과 맞물려 집중적으로 제출된 이러한 연구들은 판소리 용어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새로운 연구 방법에 대한 모색과 같은 이론적 심화를 위한 논의는 물론이고, 판소리의 자료 구축이라는 토대적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외에, 판소리와 동아시아 제국의 연행 갈래와의 비교 논의⁵²⁾도 몇 편 보인다.

전문 연행자들에 의한 고도의 예술장르라 할 수 있는 판소리는 오늘날에도 그 전승이 지속되면서 창작 판소리라는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도 연구의 한 경향을 이루고 있다. 또랑광대의 창작 판소리나 어린이 대상의 창작 판소리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 사례이다.⁵³⁾ 판소리 공연을 문화상품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⁵⁴⁾ 공연 예술로서 지속되고 있는 판소리의 활용 및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5. 민속극

예년의 연구 동향 보고에 의하면 민속극 분야는 구비문학 연구의 성과가 양적으로 가장 적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구 편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민속극 개별 작품의 주제나 의미에 대한 작품론적 논의,⁵⁵⁾ 주변 국가 전통극과의 비교,⁵⁶⁾ 민속극 일반의 가치와 일반

-
- 51) 김동건, 「판소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현황과 방안, 그리고 전망」, 『판소리연구』25; 김정태, 「“판소리학” 정립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용어고찰-유사용어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25; 유제호, 「판소리에 대한 묘사 중심 접근의 가능성 모색」, 『판소리연구』25.
- 52) 박영산, 「일본 가타리모노의 양식화와 판소리」, 『판소리연구』26; 박소현, 「몽골의 구비연행 서사시, 벤스니 울게르와 판소리」, 『판소리연구』26; 김익두, 「동아시아 공연예술 상에서 판소리의 공연학적 위상과 가치」, 『판소리연구』25; 최원오, 「판소리와 비교구비서사시학」, 『판소리연구』26.
- 53) 정혜정, 「또랑광대 창작판소리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진은진, 「어린이를 위한 창작 판소리의 현황과 특징」, 『판소리연구』25; 진은진, 「어린이 판소리의 설화 수용 양상」, 『국어국문학』149.
- 54) 최동현, 「판소리의 세계화에 관하여」, 『판소리연구』26;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공연문화콘텐츠적 성격」, 『공연문화연구』16, 한국공연문화학회; 박정경, 「판소리 문화관광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판소리연구』25.
- 55) 박진태, 「중탈놀이의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위한 시론」, 『고전문학과 교육』15; 사진실, 「<봉산탈춤>의 웃음 창출 양상과 문화사적 의미」, 『어문연구』57; 조훈성, 「봉산탈춤 노장과

이론에 대한 논의⁵⁷⁾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탈’과 관련한 논쟁적 연구가 제출되어 이목을 끈다.

무형문화재 <발탈>의 현재적 모습이 원형일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⁵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 발인형 연행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발인형 연행인 발탈이 과연 고유의 전통문화인가를 회의하는 허용호의 논의⁵⁹⁾는 자못 중요한 논쟁거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호의 주장에 따르면, 박춘재에 의해 형성된 한국의 발탈은 박춘재가 일본 사이타마현의 발인형 연행을 접하고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처음에는 1인 연행이었다가 점차 2인 이상 연행으로 전개되면서, 박춘재의 전통 재담 연행 능력과 소리 능력이 발휘되면서 한국 발탈의 독특함을 이루었다고 한다. 허용호는 이러한 발탈의 독특함은 일본 발인형 연행의 한국화이자, 한국 재담 전통의 현재화라는 의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논쟁적 의의는 한국 발탈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근대의 연행 장르라는 주장이 자못 과격적이라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허용호는 일본 발인형 연행과 전통 재담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한국 발탈의 예를 통해 ‘민속 전통의 정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한편, 개화와 일제 강점기를 전후한 한·일 간의 문화 교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비문학의 생명은 ‘연행’에 있으며 연행은 현실의 체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바, 그러한 현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외래 문화의 급격한 유입에 대한 고려는 구비문학 연구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구비문학의 여러 갈래에서 그

장의 상징과 주제의식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1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허용호, 「동해안 탈곡의 여성과 욕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김현정, 「가면극 노장과정의 연행방식 변화가 주제에 미친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56) 김은희, 「한국과 중국의 종교의례적 놀이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36; 김현선·김형근, 「한국·중국·일본의 연희 비교」, 『비교민속학』36.

57) 임재해, 「한국 탈춤의 전통과 아름다움 재인식」, 『비교민속학』37; 박진태, 「민속극의 놀이공간과 구경꾼의 관계를 통해 본 문화융합」, 『구비문학연구』26.

58) 김수남, 「무형문화재 <발탈>의 정형성과 원형성에 대한 논의」, 『공연문화연구』17, 한국공연문화학회.

59) 허용호, 「한·일 발인형 연행의 양상 비교와 그 형성 과정」, 『비교민속학』36.

시기에 이루어진 일본의 영향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허용호의 논의가 지니는 의의는 이런 면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2.6. 기타

2008년도에는 그간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속담 분야의 연구 성과가 몇편 제출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루마니아, 러시아, 중국의 속담과 한국 속담을 비교하는 석사 논문 네 편⁶⁰⁾이 조사되었다. 조희웅⁶¹⁾은 ‘속담’이라는 어휘가 19세기 이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그 대신 ‘언(諺)’ 계열 어휘가 현재의 ‘속담’을 지칭하는 말이었음을 살폈다. 또, 그러한 속담에 대한 지식인의 채집 사례를 통해 그것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밝혔다. ‘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의 ‘속담’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속담 연구의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간에 확장된 구비문학 연구 대상의 대표적 갈래인 ‘재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⁶²⁾ 주목할 만한 것으로 정명기와 손태도의 논의⁶³⁾를 살펴 보자. 정명기는 근자에 이루어진 일제하 재담집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초 재담집으로 상식화되고 있는 『우순소리』에 대해, 그것은 재담집이라기보다는 풍자소설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담집 간행에 끼친 『대한매일신보』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담집에 대한 연구가 사실 관계 차원에서 검토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재담을 대상으로 하는 이후 논의의 발전적 진개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60) 김이리나, 「한국과 러시아 속담의 비교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노원영, 「한·루마니아 속담의 내용상 비교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논문; 유설비, 「한·중 ‘소’에 관한 속담 비교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주뢰, 「한·중 속담의 비교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61) 조희웅, 「諺과 俗談」, 『어문학논총』27,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62) 재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보아 설화 연구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하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해 재담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기존 갈래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갈래가 확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 이 글에서는 기타 항목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63) 정명기, 「일제 치하 재담집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149; 손태도, 「전통 사회 재담소리의 존재와 그 공연예술사적 의의」, 『판소리연구』25.

손태도는 ‘재담’을 재담말, 재담이야기, 재담극, 재담소리로 세분하고, 서사형 재담소리가 발전되어 판소리 성립의 모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재담’을 하위 갈래로 나누었다는 의의 외에, 판소리 서사무가 기원설에 대립하는 판소리 광대소리 기원설을 ‘재담소리’라는 장르를 통해 실제적으로 보완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것으로, 판소리 기원에 대한 또 하나의 논의가 추가된 셈이다.⁶⁴⁾

한편 최광식은 <민옹전>을 ‘재담’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재담 교육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었는데,⁶⁵⁾ 재담 연구의 논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연구 경향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최근 부각된 연구 경향 중의 하나인 구비문학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연구 성과도 지난 한 해 지속되었음을 부언해 둔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등의 명패를 내건 논의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은데,⁶⁶⁾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 장으로 미룬다.

3. 문제적 연구 경향과 첨언

분야별 연구 동향 개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적 경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드러나는 것이 발견된다. 향후 구비문학의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 생각되는바, 그 경향을 다시 정리하고 짧은 소견을 덧붙여 둔다.

64) 판소리의 성립에 ‘이야기하기’라는 연행 갈래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신동훈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2009년에 간행된 책이지만 이 자리에 소개하기로 한다. 신동훈, 「판소리의 성립과 판소리계 소설의 확산」, 『새 민족문학사 강좌 01』, 창비, 2009.

65) 최광식, 「<민옹전> 소재 재담의 발상과 재담 교육 텍스트로서의 가치」, 『어문학』102, 한국어문학회.

66) 최근의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은 거의 대부분이 구비문학 개별 갈래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것이다. 학술지 수록 논문에도 이러한 논문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1. '민족'에 대한 시각과 구비문학 연구의 방향

'민족'이 구비문학 연구의 중요한 화두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구비문학 연구는 구비문학으로 범주화되는 개별 갈래의 의미와 가치를 '민족 문화의 발견'에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2008년도에 간행된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와 같은 단행본⁶⁷⁾은 다른 '민족'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신화'라는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그 전형적 연구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구비문학 연구의 전제가 되어 온 '민족'이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하나는 이른바 '한민족'이 과연 동질적 문화 종족/민족인가에 대한 회의적 담론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민족은 곧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상상의 산물이거나 신념이라는 견해 아래에서, 구비문학 연구의 목표를 민족 문화적 특질 규명에 두기란 쉽지 않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 삶의 조건이 의문의 여지 없이 '다민족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가 중요시되는 일련의 연구 경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적 조건은 '단일민족' 개념의 포기 혹은 수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국구비문학회의 기획으로 구체화되었다. 작금의 현실을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에서 구비문학은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였다. '민족'에서의 탈피가 주장되기도 하였지만,⁶⁸⁾ '엄연한 실재'로서의 자민족 혹은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근간으로 타민족의 여러 문화가 수용되어야 하고 또 구비문학을 통해 그러한 실증적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시되기도 하였다.⁶⁹⁾ 애초에 '다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가 선택된 것은, '단일민족'이라는 민족

67) 임재해 외,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이 책에는 2007년 11월 한국비교민속학회가 개최한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68) 강정원, 「다문화시대의 구비문학연구」, 『구비문학연구』26; 최원오, 「구비문학과 다문화주의」, 『구비문학연구』26

69) 박진태, 「한민족과 세계, 그리고 구비문학-21세기적 상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7; 임재해, 「골재전 설화의 다문화 읽기와 다문화 사회 만들기」, 『구비문학연구』26.

주의적 신념이 여전히 구비문학 연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한 해의 연구 경향을 개관해 보면 이러한 신념의 균열 양상이 감지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구비문학에 대한 학회 기획에서의 몇몇 견해를 비롯, 앞에서 살펴본 분야별 연구 동향에서의 몇몇 연구가 곧 그것이다. ‘민족’이 아닌 ‘마을’을 전통 전승의 단위로 고찰하려는 시도, 타문화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배척하고 민족 내에서의 지속적인 전통을 구축하려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교섭과 변이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논의, 단일 민족으로 여겨왔던 공동체 내부의 이질적 집단 혹은 이질적 민족의 발견, 기존 연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이면의 민족주의적 지향을 드러내려는 논의 등은 그러한 균열의 실재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균열에 대한 논쟁,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제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이다.

3.2. 구비문학의 현재성에 대한 접근법

구비문학은 ‘연행’이라는 실존적 특성상 늘 ‘현재’와의 관련성이 문제된다.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를 발견하려는 집요한 노력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체화된다. 하나는 ‘과거’에 연행되었던 구비문학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과거’에도 연행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연행되는 구비문학이 어떻게 지속되고 변용되며 향유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자는 구비문학‘과’ 현재가, 후자는 구비문학‘의’ 현재가 문제된다.

구비문학이 현재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하는 전자의 문제는 구비문학이 과거에 향유되던 방식 그대로 오늘날 향유되지 않는다는 현실과 연관된다. 따라서 구비문학을 어떻게 현재적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현대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구비문학을 ‘문화콘텐츠화’하며, 현대인이 접근하기 쉽게

가공하고, ‘치료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는 등의 최근의 연구 경향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소산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 ‘실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굴복한 한때의 유행이자 인문학의 타락인지, 아니면 고전 혹은 과거 문화의 가치를 되살리는 인문학의 새로운 영역 확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선부른 듯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과거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를 구체화하여 활용하는 차원의 논의-특히 ‘스토리 텔링’과 같은 현대적 재구성-에서는, 구비문학 자체에 대한 인문학적 성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제시해 둔다. 구비문학 텍스트를 일정한 맥락 안에서 엄밀히 고찰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연구’가 그 토대로서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전통 사회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구비문학의 현재에 관련되는 후자의 문제는 과거의 문화적 지위는 비록 상실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판소리나 굿 등 비교적 연행의 전문성이 강한 구비문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경향은 이러한 구비문학의 현재를 최대한 ‘잘’ ‘묘사’하고 ‘서술’하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구비문학 연구가 그 텍스트를 둘러싼 연행 전반과 그 배경까지도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고려가 연구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식 없는 사실의 나열은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론만큼이나 공허하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3.3. 일제 강점기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

발생 시기가 각기 다른 구비문학의 개별 갈래들에 공통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시간이 일제 강점기라는 당연한 사실은 그간 논의의 수면 위로 부각된 바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일제 강점기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것이 느리게 변해 온 전통 사회와 공동체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구비문학 역시 변모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그간 드

물었던 것은 그러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의 부재가 결정적이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구비문학 텍스트는 이미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전승되어 온 것이고, 그 변화 양상을 가늠할 수 있는 비교 대상으로서의 강점기 이전 텍스트를 확인할 방도는 요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의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새롭게 출현한 대중가요와 같은, 구비문학 혹은 구비문학적 성격을 지니는 연행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왔다.

이런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되는 연구 성과는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구비문학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적 연구라 하겠다. 구비문학 텍스트 수집 및 간행,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대한 논의가 비롯되고 있는바, 근대 학문으로 형성된 한국 구비문학 연구사에 대한 비평적 접근이 여기서부터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제 강점기에서 비롯된 구비문학 연구사의 경향과 특징을 찾아내고 그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은 구비문학 연구의 미래와 향방을 좌우하는 자못 중요한 작업인바, 이러한 시각의 논의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시기에 주목하면서 특히 연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대상이 발굴·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통 연행과 외부에서 유입된 근대적 연행의 상호 관계 위에서 그 입체적 면모를 탐색하려는 연구는 구비문학 연구의 폭을 확장하는 동시에 여타 학문 분야와 발전적으로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4. 맺음말

2008년도 구비문학 연구를 개관하면서 두 가지 긍정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다. 하나는 연구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연구 대상에 대한 기초적이고 실증적인 논의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는 물론이고 텍스트를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고찰도 집적되고 있는바, 이것이 사실의 기술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발전적 논의의 토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른 하나는 연구 방향이나 연구 시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적 연구’가 여러 분야에 고루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실로 ‘문제적’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가 이후 논의에서 발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해의 소지를 미리 없앤다는 차원에서 사족을 덧붙이자면, 이 글에서 제시한 것만이 향후 논의의 주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 둔다.

구비문학 혹은 구비문학 연구의 위기에 대한 설왕설래를 지나, 최근 구비문학 연구는 구비문학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연구 시각을 도출하고 그것을 지속·발전시켜 왔다. 2008년도 구비문학 연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문제적 연구 시각과 논점을 쟁점화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확장시키는 실천적 과제가 남아있다.

참고문헌

1. 설화

- 강미정, 「<자린고비> 설화와 강박성 성격장애와의 상관성」, 『문학치료연구』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 강성숙, 「설화 속 여성의 말하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8.
- 강소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3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강은혜, 「동아시아의 대장장이 신화 연구」, 『동북아문화연구』1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 강재철, 「러시아 N.G.가린의 개화기 한국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방법-조사자와 제보자 및 후원자에 주안하여」, 『동아시아고대학』18,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 고영화, 「전설교육시론」, 『국어국문학』150, 국어국문학회, 2008.
- 고은지, 「20세기 ‘대중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112, 2008.
- 곽익숙, 「한국 의료설화 연구」, 동의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곽정식, 「저승 설화의 전승 양상과 현실주의적 성격」, 『어문학』101, 한국어문학회, 2008.
- 권도경, 「독도 광포전설의 존재양상과 그 지역적 정체성」, 『선도문화』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 _____, 「소서노 신화의 위계 변동 체계 및 전설화 양상과 그 의미」, 『퇴계학과 한국문화』42,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 권오경, 「동아시아 곡신신화 연구」, 『어문학』102, 한국어문학회, 2008.
- 권태호, 「<대대로 내려온 불씨>담의 성격과 불 기원신화적 면모」,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회, 2008.
- _____, 『근대 여명기 우리 신화 연구』, 민속원, 2008.
- 권혁래, 「근대 초기 설화-고전소설집 『조선물어집』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언어문학』64, 한국언어문학회, 2008.
- 김경섭, 「설화읽기에 대한 반성적 고찰」, 『어문연구』56, 어문연구학회, 2008.
- _____, 「오래된 거울, 도깨비의 타자성」, 『국문학연구』18, 국문학회, 2008.
- 김기중, 「판타지 동화의 구전설화 수용 양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26, 2008.
- 김기호,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동물 형상-호랑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김대수, 「결혼 이후 여성의 자기 체험 서사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2008.
- 김보라, 「황전마을 이야기의 연행 및 전승양상 연구」, 안동대 대학원 민속문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복순, 「여성 바보담의 웃음과 의미 고찰」, 『어문연구』1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_____, 「한국 바보담 연구」, 강원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신정, 「한국 며느리 설화 연구」, 서강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남, 『시조 신화 연구: 한국 신화학의 「근대성」 극복을 위하여』, 제이앤씨, 2008.
- 김영주, 「‘김유신’ 이야기의 전승 유형에 따른 특징과 그 의미」, 『문학과 언어』30, 문학과 언어학회, 2008.
- 김용덕,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3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김원규, 「설화에 나타난 마을문화와 주민들의 의식」, 안동대 대학원 민속문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김정하, 「부산의 일본귀신 전설에 대한 도시민속학적 고찰」, 『동북아문화연구』1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 김종대, 「왕의 탄생과 관련한 이물교혼담에서의 동물상징성 고찰」, 『우리문학연구』23, 우리문학회, 2008.
- _____, 「학교괴담을 통해 본 전통문화의 수용과 변화에 대한 일고찰」, 『우리문학연구』25, 우리문학회, 2008.
- 김진원, 「러시아인의 영웅담-볼호 브세슬라브예비치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회, 2008.
-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 방식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3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김현선 역, 『류큐 설화집 <<유로설전>>』, 보고사, 2008.
- 나주연, 「한국 민담에 나타난 샤머니즘적 모티프」, 『비교민속학』37, 비교민속학회, 2008.
- 노성환, 「내선일체에 이용된 한일신화」, 『일어일문학』40, 2008.
- _____, 「일본신화에 있어서 한국신화의 수용과 변용」, 『일본언어문화』13,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8.

- 노영근,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유형의 갈래와 의미」, 『어문연구』1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노재운, 「나무꾼과 선녀」·「우렁각시 설화의 정신분석적 의미 비교 연구」, 『어문논집』58, 민족어문학회, 2008.
- 박기용, 「한·중 건국 시조신화 비교 연구」, 『우리말글』43, 우리말글학회, 2008.
- 박미경, 「미시나 쇼에의 한국신화연구 고찰」, 『일본학연구』25, 단국대일본연구소, 2008.
- 박성주, 김유신관계 문헌자료와 설화의 비교」, 『신라문화』3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 박송희, 「한·중 시조신화 비교연구」, 숭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연숙, 「손없는 색시의 한일 비교 연구」, 『비교문학』44, 한국비교문학회, 2008.
- _____, 「한일민담 <약 되는 간>과 <의붓자식의 간 내기(繼子の肝取り)>考」, 『어문학』100, 한국어문학회, 2008.
- 박종성, 「중·동부 유럽과 한국의 창세신화 그리고 변주」, 『비교민속학』35, 비교민속학회, 2008.
- _____, 「한국의 귀신설화 연구」,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방유리나, 「<쥐쫓도 모른다>에 나타난 부부의 성 문제와 관계의 재정립」, 『문학치료연구』8,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 서은아, 「<손없는 색시>의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국학연구』12, 한국국학진흥원, 2008.
- 성정희, 「설화를 활용한 소아기 우울증 아동의 문학치료 사례 연구: <반쪽이>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신경득, 「옹녀의 산신격 연구」, 『배달말』42, 배달말학회, 2008.
- 신동훈, 「구술여행담의 문학적 성격과 교육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신연우, 『우리 설화의 의미찾기』, 민속원, 2008.
- 신장섭, 「「사금갑」 설화의 영사악부 전승과 그 의미」, 『어문연구』1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심우장, 「동물설화와 인간구체화의 과정-가치의 보은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심우장 외,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 책과함께, 2008.
- 안미영,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정신문화연구』113, 2008.

- 양민중, 「단군신화와 게세르 신화」, 『단군학연구』18, 단군학회, 2008.
- 오세정, 「전설의 서술방식과 역사적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 _____,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 오정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설화의 활용-설화 <선녀와 나무꾼>과 설화 <우렁각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이강엽, 「<동명왕편> 소재 양가물의 신화적 기능과 서사맥락에서의 의미」, 『고전문학연구』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이건호, 「가야 설화의 형성과 배경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이동월, 「계월항 이야기와 죽음의 변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이미현, 「남부지방의 풍수설화 연구」, 중부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 집문당, 2008.
- 이영수, 「‘풍기문관’형 설화 연구」, 『비교민속학』36, 비교민속학회, 2008.
- _____, 「인천 지역의 산이동 설화 연구」, 『비교민속학』35, 비교민속학회, 2008.
- _____, 『한국설화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 이영지, 「자칭비와 문도령 이야기의 적층 양상」, 『배달말』42, 배달말학회, 2008.
- 이유진, 「한국 천주교 순교자 설화 연구-여성 동정 순교자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이인경,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_____, 「기혼여성의 삶, 타자 혹은 주체-구비설화로 본 이면적 진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6, 2008.
-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 이지영, 「<모자를 잡은 호랑이>의 동북아 전승양상과 특징」, 『동아시아고대학』17,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 _____, 「<아래자설화>와의 관계 속에서 본 <불씨와 동삼>-불 신앙에 관한 비교민속을 겸하여」, 『동아시아고대학』18,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 _____,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승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 이찬욱·이채영, 「한국 귀신의 원형성과 아랑형 여귀담」, 『우리문학연구』24, 우리문학학회, 2008.
- 이향애, 「한국 풍수설화 연구」, 서강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이현홍, 「제일한인의 삶과 이야기-생존 현실과 망향의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임신주, 「구비 혼례설화에 나타난 의식 연구」, 부산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임재해, 건달형 인물전설의 어긋난 행위에 갈무리된 근대성 읽기, 『한민족어문학』53, 한민족어문학학회, 2008.
- _____, 「골계전 설화의 다문화 읽기와 다문화 사회 만들기」,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_____, 「설화에 의한 문화주권 인식과 마을문화 읽기」, 『어문학』99, 한국어문학학회, 2008.
- _____,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 임정자, 이야기바다, 『임석재 구전설화』,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전성희,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한국민속학』48, 한국민속학회, 2008.
- 전영숙, 「한국과 중국의 창세 및 건국신화 속에 깃든 물 숭배 관념」, 『한중인문학연구』24, 한중인문학연구회, 2008.
- 전주희, 「제주도 무속 신화에 나타나는 증여 관계 연구: 독립된 제차를 지닌 일반 신분풀이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정재민, 「사회화 과정으로 본 기간병 유머의 양가성」, 『국문학연구』18, 국문학학회, 2008.
- 정진희,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조은숙, 「유성기 음반에 담긴 옛이야기-1930년대 김복진의 구연동화 음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49,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8.
- 조희웅, 『이야기문학 실타래』, 글누림출판사, 2008.
- 진영결, 「한·중 왕조신화의 용설화 비교 연구: <<삼국유사>>와 <<25사>>를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진은진, 「어린이 판소리의 설화 수용 양상」,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학회, 2008.
- 천혜숙, 「선도성모 담론의 신화학적 조명」,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최광식, 「〈민옹전〉 소재 재담의 발상과 재담 교육 텍스트로서의 가치」, 『어문학』 102, 한국어문학회, 2008.
- 최기숙, 「‘둔갑’의 생리, 그 욕망과 수용의 문화적 맥락」, 『동방학지』, 국학연구원, 2008.
- _____, 「‘착한’ 돈과 윤리적 사회, ‘부자’를 보는 문학적 시선」, 『민족문학사연구』 37, 민족문학사학회, 2008.
- 최연식·이승규, 「용비어천가와 조선 건국의 정당화: 신화와 역사의 긴장」, 『동양정치사상사』7,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08.
- 최원오, 「제물과 약물의 구비서사를 통해 본 타자 만들기와 주체성」, 『국문학연구』17, 국문학회, 2008.
- 최윤자, 「『심청전』의 신성화신화적 성격 연구」,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진형, 「처용 전승의 계승과 변천」, 『반교어문연구』24, 반교어문학회, 2008.
- 하은하, 「〈명당 흠친 딸〉과 부모 서사 진단」, 『문학치료연구』8,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 한국민속학회 엮음, 『설화』, 민속원, 2008.
- 한기연, 「설화에 나타난 동굴의 상징성」, 고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허명남, 「한국 창작동화의 도깨비민담 수용 양상과 의미 연구」, 부경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허희수, 「조선시대 호남지역 열녀설화 연구」,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홍순일, 「무안 지역 왕건 전설의 특성과 문화론적 활용」, 『어문연구』56, 어문연구학회 2008.
- 황인덕 편, 『이야기꾼 구연설화: 민옥순』, 제이앤씨, 2008.
- 황인덕, 「에밀레종 전설의 근원과 전래」, 『어문연구』56, 어문연구학회, 2008.
- 황인순, 「〈아랑 설화〉 연구: 신화 생성과 문화적 의미에 관하여」, 서강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2. 민요

- 강등학, 「정선아라리의 민요 생태와 문화적 의미」, 『한국민요학』23, 한국민요학회, 2008.
- 강정미, 「〈밭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 연구: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비교 분석」, 부경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고은영, 『평안남도 지방의 민요 분석』, 중앙대 대학원 작곡(한국음악학) 석사학위 논문, 2008.
- 고현주, 「전남지역 상여소리 연구: 화자에 따른 죽음의식을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구인모, 「가사체 형식의 창가화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권도희, 「1910년대 창가와 잡가」, 『한국어문학연구』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김미희, 「토속민요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국악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은, 「『조선민요 1000곡집』 분석을 통한 함경도 민요 연구」, 중앙대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익두, 「전북 민요의 소용돌의 미학」, 『한국민요학』22, 한국민요학회, 2008.
- 김종진, 「잡가·민요·가사의 경계에 대한 탐색」, 『한국어문학연구』5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류경자, 「무가 <당금애기>와 민요 ‘중노래·말말애기’류의 교섭 양상과 변이」, 『한국민요학』23, 한국민요학회, 2008.
- 민경찬, 「“창가”를 다시 묻는다」, 『한국어문학연구』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박정선, 「해방가요의 이념과 형식」, 『어문학』99, 한국어문학학회, 2008.
- 박지애, 「유성기 음반 소재 잡가의 현황과 레퍼토리의 양상」, 『어문학』99, 한국어문학학회, 2008.
- 배연형, 「창가 음반의 유통」, 『한국어문학연구』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서영숙, 「서사민요의 장르와 문학적 특징」, 『한국민요학』23, 한국민요학회, 2008.
- _____, 「임석재 채록 민요의 기능별 분류와 사설의 특징」,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_____, 「충북 여성 민요의 정서 표현 양상과 현실 의식」, 『한국민요학』22, 한국민요학회, 2008.
- 손인애, 「서도민요 <긴난봉가>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민요학』23, 한국민요학회, 2008.
- 양진성, 「필봉농악의 공연학적 연구」, 전북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유춘심, 「<긴·자진아리>에 대한 연구: 북한 민요 <룡강기나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성악(서도민요)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성훈, 「<해녀노젓는 소리>의 형성과 분포 전파」, 『우리문학연구』24, 우리문학학회, 2008.

- 이영식, 「민요 사설에서의 다문화 존재양상-한국민요대전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회, 2008.
- 이예진, 「신민요 사설의 특성 분석: 『유성기음반가사집』을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옥희, 「진도 민요의 문화적 특질과 위상」, 『한국민요학』22, 한국민요학회, 2008.
- 이정아, 「어사용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이창진, 「충청북도 농요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유교철학·예악학 박사학위논문, 2008.
- 장유정, 「1950년대 대중가요의 이국성 고찰」,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회, 2008.
- _____, 「한국 트로트 논쟁의 일고찰」, 『대중서사연구』20, 대중서사학회, 2008.
- 전지영, 「일제 강점기 비평가들의 민요 의식」, 『국악과 교육』26, 한국국악교육학회, 2008.
- 정규식, 「민요 사설에 형상화된 동물에 대한 인식」, 『한국민요학』24, 한국민요학회, 2008.
- 최수정, 「박춘재의 경기민요 노랫가락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성악(한국음악학)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은숙, 「20세기 전반기 대중가요계의 ‘대중성’ 담론과 민요 수용 문제」, 『어문학』101, 한국어문학회, 2008.
- _____, 「일제 강점기 민요 창작론과 창작민요의 특징」, 『한국민요학』24, 한국민요학회, 2008.
- 최자운, 「다복녀 민요의 유형과 서사민요적 성격」, 『한국민요학』22, 한국민요학회, 2008.
- 최현재, 「서사민요 ‘처녀의 저주로 죽는 신랑’ 유형에 나타난 양가성 고찰」, 『우리말글』43, 우리말글학회, 2008.
- 홍순일,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 양상」, 『한국민요학』22, 한국민요학회, 2008.

3. 무가*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보고서, 2008.
- 강진욱, 「〈바리공주〉의 서술구조와 ‘망자축원’의 존재양상: 배경재본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회, 2008.

* 신화적 성격을 주로 다룬 글이라 하더라도, 무가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설화 항목이 아닌 무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 곽진석, 「제주도 <시왕맞이> 의례의 절차와 유형 연구」, 『한국문학논총』49, 한국 문학회, 2008.
- 권선경, 「서울강 노랫가락의 유형과 기능」, 『한국무속학』16, 한국무속학회, 2008.
- 권은영, 「20세기 풍물굿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김구환, 「동해안 세습무 김영희의 무가 사설 연구」, 울산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선희, 「<세경본풀이>연구: 분석심리학적 접근」, 제주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신호, 「동해안 탈굿의 변화 양상과 요인」, 『한국무속학』16, 한국무속학회, 2008.
- 김월덕, 「만경강 유역 농가 의례의 마을간 연대 원리」, 『비교민속학』37, 비교민속학회, 2008.
- _____,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마을굿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35, 비교민속학회, 2008.
- 김종대·차보영, 「경기 북부지역 마을신앙과 가을제외에 대한 일고찰」, 『국제어문』43, 국제어문학회, 2008.
- 김현선, 「서울새남굿 <중디밧산> 거리의 전승·구조·제의적 의의」, 『중앙민속학』, 2008.
- _____, 「제주도와 沖繩의 내림굿과 본풀이 비교연구」, 『비교민속학』35, 비교민속학회, 2008.
- 김현선·변남성,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김현선·시지은, 「함경도 본풀이 <돈전풀이>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김형근·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정신문화연구』1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김혜정, 「황도 당제 및 당신화의 전승과 변모」, 고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남성진, 「공동체 대동굿의 길놀이 연행 방식」, 『비교민속학』36, 비교민속학회, 2008.
- 노성미, 「마산 지역 성황당의 제의전승 고찰」, 『문학과 언어』30, 2008.
- 박종익, 「홍성군 광천읍 응암리의 당제 분석」, 『어문연구』57, 어문연구학회, 2008.
- 변지선, 「서울진오기굿 연구」, 고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손태도, 「조선 후기의 무속」, 『한국무속학』17, 한국무속학회, 2008.
- 윤동환,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윤동환, 「동해안국의 전승 주체와 문화 창출」, 『한국무속학』17, 한국무속학회, 2008.
- 이수자, 「임석재의 <관북지방무가>에 나타난 무속신화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이영배, 「굿 문화의 교섭과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무속학』17, 한국무속학회, 2008.
- _____, 「문화사회에서 잡색놀이 연구의 위상과 전망」, 『비교민속학』36, 비교민속학회, 2008.
- 임이나, 「시나위권 무가의 꺾는목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학(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임태균, 「동해안 거리국의 전승양상 연구」, 울산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조정현, 「동해안 별신국의 토대와 물질문화 전승」, 『한국무속학』17, 한국무속학회, 2008.
- _____, 「별신국의 전승력과 축제적 연행의 원형」, 안동대 대학원 민속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안동 지역 별신국의 제의성과 축제성」, 『비교민속학』35, 비교민속학회, 2008.
- 최명환, 「충청북도 마을신앙 현황과 당신화 전승 가능성」, 『고전문학연구』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최상화, 「서울국의 노랫가락 연구」, 고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최성진, 「동해안 별신국 무가의 전승 현황 연구」, 『한국무속학』17, 한국무속학회, 2008.
- 최영장군당굿보존회 편, 『최영장군당굿 연구』, 민속원, 2008.
- 최윤영, 「서해안 배연신국의 연행양상」, 『한국극예술연구』28, 한국극예술학회, 2008.
- 한국무속학회 엮음, 『황해도국의 이해』, 민속원, 2008.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148, 국어국문학회, 2008.
- 홍태한, 「동해안국 무가의 존재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17, 한국무속학회, 2008.
- _____, 「서울 마을국의 전승 현황과 유형 구분」, 『중앙민속학』13, 중앙대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8.
- _____, 「서울국 ‘굿거리장단’ 연구」, 『비교민속학』37, 비교민속학회, 2008.

_____, 「한국국의 지역별 ‘부정국’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36, 비교민속학회, 2008.

_____, 「황해도국의 무가」, 『한국무속학』16, 한국무속학회, 2008.

황루시, 「동해안국의 전승 상황과 특징」, 『한국무속학』17, 한국무속학회, 2008.

4. 판소리

강윤정, 「박동진 창본 <변강쇠가> 연구」, 『판소리연구』25, 판소리학회, 2008.

권언수, 「판소리 진양조와 세마치 장단의 비교 연구: 춘향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학 석사학위논문, 2008.

김동건, 「판소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현황과 방안, 그리고 전망」, 『판소리연구』25, 판소리학회, 2008.

김소연, 「거문고 병창 새타령 연구: 판소리 적벽가 중 새타령과의 비교 연구」, 부산대 대학원 한국음악학 석사학위논문, 2008.

김수중, 「초기 판소리의 집단 문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65, 한국언어문학회, 2008.

김유경, 「판소리 심청가의 선율 비교연구: 김소희·성우향 더늠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성악(판소리) 석사학위논문, 2008.

김익두, 「동아시아 공연예술 상에서 본 판소리의 공연학적 위상과 가치-현진하는 대표적인 한, 중, 일 강창예술 양식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25, 판소리학회, 2008.

김정태, 「“판소리학” 정립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용어고찰-유사용어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25, 판소리학회, 2008.

김현주,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박소현, 「몽골의 구비연행서사시, 벤스니 울게르와 판소리」, 『판소리연구』26, 판소리학회, 2008.

박연호, 「신재효 <치산가>와 『초당문답가』의 관련 양상 및 그 의미」,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2008.

박영산, 「일본 가타리모노의 양식화와 판소리」, 『판소리연구』26, 판소리학회, 2008.

박정경, 「판소리 문화관광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판소리연구』25, 판소리학회, 2008.

배성자, 「박동실 판소리 연구」,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배연형 엮음, 『춘향가 심청가 소리책: 판소리 100년의 타임캡슐』,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배연형 엮음, 『관소리 소리책 연구: 관소리 100년의 타임캡슐』,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서유석, 관소리에 나타나는 ‘몸’ 이미지의 구현 양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14, 경희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8.
- 서정금, 「관소리 발림에 관한 연구: 심청가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성악(관소리) 석사학위논문, 2008.
- 서정민, 「단가 “녹음방조” 연구」, 『관소리연구』25, 관소리학회, 2008.
- 서종문, 『관소리와 신재효 연구』, 제이앤씨, 2008.
- 손태도, 「동편제 소리의 부활을 꿈꾸며-관소리 명창 유성준론」, 『선청어문』36, 서울대국어교육과, 2008.
- 송미경, 「1910년대 관소리 여성 연행주체의 형성과 성장」, 고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은주, 「충청 지역 관소리 문화의 역사와 전승 양상」, 『한국음악사학보』40, 한국음악사학회, 2008.
- 신현미, 「관소리 <수궁가> 연구: 신재효의 토별가와 유성준의 수궁가 사설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성악(관소리) 석사학위논문, 2008.
- 우혜영, 「<변강쇠가>의 인물 특성과 성담론 연구」, 배재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유제호, 「관소리에 대한 묘사 중심 접근의 가능성 모색」, 『관소리연구』26, 관소리학회, 2008.
-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강쇠 현상과 그에 대한 적대의 의미」, 『어문논집』58, 민족어문학회, 2008.
- 정병현, 「관소리의 전승과 공간적 배경의 관계 연구」, 『관소리연구』25, 관소리학회, 2008.
- 정충권, 「<홍보가> 비단타령에 나타난 언어놀이」, 『선청어문』36, 서울대국어교육과, 2008.
- _____, 「관소리 서사의 본질과 그 확장 가능성」, 『내러티브』10, 한국서사연구회, 2008.
- 정혜정, 「또랑광대 창작관소리 연구」,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진은진, 「어린이를 위한 창작 관소리의 현황과 특징」, 『관소리연구』25, 관소리학회, 2008.
- 차복순, 「관소리 명창 이일주의 생애와 예술」, 고려대 인문정보대학원 한국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채수정, 「판소리 다섯 바탕의 중모리 대목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학 박사학위논문, 2008.
- 최동현 교수, 『김연수 완창 판소리 다섯 바탕 사설집』, 민속원, 2008.
- 최동현, 「판소리의 세계화에 관하여-가능성을 위한 시론」, 『판소리연구』26, 판소리학회, 2008.
- 최문정, 「판소리에 나타난 인물의 형상화와 유교 이념」, 『비교문학』44, 한국비교문학회, 2008.
- 최원오, 「판소리와 비교구비서사시학: 종교성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26, 판소리학회, 2008.
- 최진형, 「출판문화와 <토끼전>의 전승」, 『판소리연구』25, 판소리학회, 2008.
- 최혜진, 「명창 박초월론」, 『판소리연구』26, 판소리학회, 2008.
- _____,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유랑 예인집단의 양상과 의미」, 『고전과 해석』5, 고전문학학술연구학회, 2008.
- 판소리학회 엮음, 『판소리의 전승과 재창조』, 박이정, 2008.
-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공연문화콘텐츠적 성격」, 『공연문화연구』16,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5. 민속극

- 김수남, 무형문화재 <탈탈>의 정형성과 원형성에 대한 논의」, 『공연문화연구』17,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
- 김슬기, 「탈춤과 노오의 민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무용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은희, 「한국과 중국의 종교의례적 놀이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36, 비교민속학회, 2008.
- 김현선·김형근, 「한국·중국·일본의 연희 비교」, 『비교민속학』36, 비교민속학회, 2008.
- 김현정, 「가면극 노장과장의 연행방식 변화가 주제에 미친 영향」, 고려대 대학원 민속학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수미, 「탈춤 연행의 축제성 연구」, 상명대 예술·디자인대학원 연극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진태, 「민속극의 놀이꾼과 구경꾼의 관계를 통해 본 문화융합」,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_____, 「중탈놀이의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위한 시론」, 『고전문학과 교육』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_____, 「한·중 단오제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37, 비교민속학회, 2008.
- 사진실, 「<봉산탈춤>의 웃음 창출 양상과 문화사적 의미」, 『어문연구』57, 어문연구학회, 2008.
- 서영(徐瑩), 「한국가면극에 나타난 나례의 성격: 강릉관노가면극을 중심으로」, 강릉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임재해, 「한국 탈춤의 전통과 아름다움 재인식」, 『비교민속학』37, 비교민속학회, 2008.
- 정선희, 「「처용무」와 「봉산탈춤」에 나타난 한국의 사상과 미의식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무용 석사학위논문, 2008.
- 조만호, 「봉산탈춤 1936년 사리원 공연 채록자료 연구」, 『반교어문연구』24, 반교어문학회, 2008.
- 조훈성, 「봉산탈춤 노장과장의 상징과 주제의식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1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8.
- 허용호, 「동해안 탈극의 여성과 욕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_____, 「한·일 발인형 연행의 양상 비교와 그 형성 과정」, 『비교민속학』36, 비교민속학회, 2008.

6. 일반론 및 기타

- 강정원, 「다문화시대의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김강원,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의 역사 서사 연구」, 『어문론집』38, 중앙어문학회, 2008.
- 김미성, 「도시축제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20, 대중서사학회, 2008.
- 김숙희, 「완도장보고축제의 문화원형 활용 연구」, 전남대 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응교, 「이야기를 통한 사회인식과 문화콘텐츠」, 『열상고전연구』28, 열상고전학회, 2008.
- 김의숙·이창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8.
- 김이리나, 「한국과 러시아 속담의 비교연구」, 대구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일영, 「설화의 영화화 과정-‘아랑 설화’를 중심으로」, 『드라마연구』28, 한국드라마학회, 2008.
- 나수호, 「외국인이 보는 한국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나주연, 『설화와 게임』, 문학과치료, 2008.
- 노원영, 「한·루마니아 속담의 내용상 비교 연구: 동물 소재를 중심으로」, 강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단국대동양학연구소 편, 『한국 근대민속의 이해1-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구비문학과 민간신앙』, 민속원, 2008.
- 박진태, 「한민족과 세계, 그리고 구비문학-21세기적 상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회, 2008.
- 손태도, 「전통 사회 재담소리의 존재와 그 공연 예술사적 의의」, 『판소리연구』25, 판소리학회, 2008.
- _____, 『우리 무형문화재의 현장에 서서』, 집문당, 2008.
- 송 준, 「나무다리 걸기의 전승 사례와 창의적 전승 방안」, 『비교민속학』37, 비교민속학회, 2008.
- 송지환, 강릉단오제 영상분석 연구: 영상민속지 분석 방법론을 중심으로, 관동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안기수·이명현, 『우리이야기와 문화콘텐츠』, 보고서, 2008.
- 양민정, 「한국어 문화교육과 판소리의 세계화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12,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8.
- _____, 「한국어 문화교육의 세계화와 탈춤의 활용방안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24, 세계문화비교학회, 2008.
- 오세정, 민속학으로서의 구비문학의 정체성과 연구 방향, 『한국민속학』47, 한국민속학회, 2008.
- 유목화, 서사문학을 활용한 곡성심청축제 연구,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劉雪飛, 「한·중 ‘소’에 관한 속담 비교 연구」,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윤혜진, 「한국의 다문화 형성과 이주민의 음악문화-다국적 이주민의 문화」,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회, 2008.
- 이규훈, 「‘거타지’ 설화의 문화콘텐츠 창작과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18, 한국콘텐츠학회, 2008.
- 이명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소재로서 고전서사의 가치」, 『우리문학연구』25, 우리문학회, 2008.
- 이상훈, 지역 설화를 활용한 문화체험공간의 조성방안 연구: 성남시 탄천의 동방삭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찬욱, 「고전문학에 나타난 ‘파랑새’의 문화원형 상징성 연구」, 『우리문학연구』25, 우리문학회, 2008.

- 이홍우, <글로벌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의 구술문화적 분석,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회, 2008.
- 정명기, 「일제 치하 재담집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2008.
- 정창권, 「고전을 활용한 상품 스토리텔링 연구」, 『돈암어문학』21, 2008.
-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7-일반이론 정립』,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조희웅, 「諺과 俗談」, 『어문학논총』27,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8.
- 주 피, 「한·중 속담의 비교 연구: 욕심, 인색류 속담을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최미진, 「한국 라디오 서사의 갈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0, 2008.
- 최원오, 「구비문학과 다문화주의」,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회, 2008.
- _____, 「구비전승의 현재와 미래」, 『한국문화인류학』41-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8.